

출판계에 '百家爭鳴' 시대 오려나

출판사·잡지 등록自由化 이후의 전망

출판사 및 잡지 등록개방을 앞두고 출판사 신규등록과 잡지 창간 움직임이 활발하다. 출판의 기능이란 저자·출판사·독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맡겨 둘 때 비로소 온전하게 발휘된다는 점에서, 출판계의 부신한 움직임은 장차 우리 출판환경의 진일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술과 출판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사상의 공개시장 원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8일 발표된 민정당의 '문화예술자율화대책' 이후 문화예술계가 전반적으로 해빙 무드를 맞고 있는데, 출판사 및 정기간행물 등록자유화를 예상한 출판계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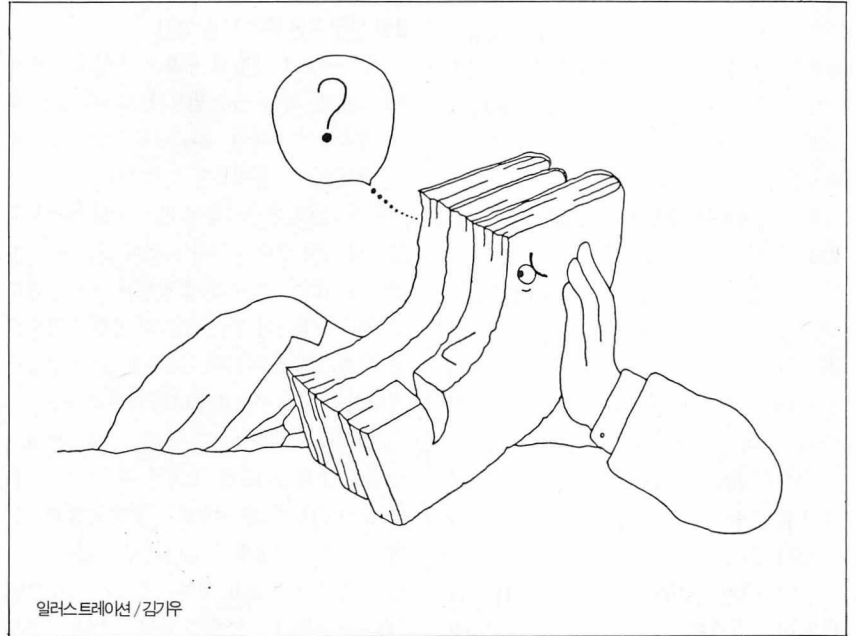
아직 문공부 당국의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아 그 구체적인 윤곽까지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리라는 공통된 기대 아래 출판사 신규 등록과 잡지 창간이 벌써부터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물론 개방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개방일 것인가에는 약간의 유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출판·잡지계의 이같은 움직임이 다소는 성급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만들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 듯한데, 이럴 경우 그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등록기준 설정같은 사전규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현재 與野가 각각 국회에 계류중인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보듯 등록취소 같은 사후규제 조항이 그대로 남는다면 등록자유화의 참뜻을 훼손케 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 출판인들의 한결같은 우려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체는 어쨌든 개방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설혹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지라도, 금명간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당국의 조치가 등록자유화, 납본필증의 즉시 교부, 판금도서 해제 등 출판계의 3대 당면문제를 개선하는 데 어느 모로든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등록' 자유화와 '출판' 자유화

출판사 및 정기간행물 등록은 법률상으로 보자면 현 제도하에서도 이미 자유화돼 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허가제가 아니면서 행정상으로는 허가제로 운용되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예컨대 출판사 등록의 경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등록청은 등록을 필한 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특히 서울에서는 1980년 이후 7년째 신규등록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예외적으로 1986년 8월5일 신규등록이 접수된 '창작사'의 경우가 있으나, 이는 1985년 12월9일의 '창작과 비평사' 등록 취소를 철회하지 않는 대신에 취해진 것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규등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일라스 트레이션 / 김기우

이같은 행정조치로 서울에서의 출판사 신규등록이 사실상 원천봉쇄되자 출판계가 궁여지책으로 짜낸 것이 지방 등록이란 편법. 현재 서울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활동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지방등록 출판사는 대구의 '화다', 진주의 '녹두', 청주의 '증원문화사', 전주의 '아침' 등 2천6백여 등록 출판사의 약 10%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지금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나, 1982년부터 인천시와 수원시로 등록청을 전전했던 '기획출판 거름'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짜낼 수 있었던 지방등록도 지난 2년간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돼 왔다.

한편, 당국의 신규등록 규제에 대응하는 또 다른 편법으로 나온 것이 등록 변경. 앞의 '기획출판 거름'도 1984년 서울시에 등록할 때는 기존의 다른 출판사를 인수, 상호를 변경하여 등록을 필한 경우다.

이렇게 되자 신규등록 규제 이전에는 인수 비용이 채 5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등록증 하나 인수하는 데도 무려 300~400만원이나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등록증 중개상까지 출현하는 형편이라는 게 모 출판인의 얘기다.

그러나, 이제 등록자유화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그같은 편법들은 사라지리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방등록 출판사들이 서울 이전 체비를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출판업을 시도하는 경우도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문호만 개방되면 언

제든지 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출판사의 양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듯. 하지만 기존 출판계는 출판사수의 증가에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다. 출판협회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무조건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나, 출판업의 특성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발전으로 업계가 충분한 自淨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亂立과 과당경쟁의 우려는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실제로 전체 등록출판사의 30% 가량인 800여개사가 1년에 한권의 책도 내지 않은 '무실적' 출판사이고 보면, 문호개방에 따른 신규등록사의 증가가 기존 출판계에 끼칠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 또한, 설사 일시적으로는 난립할지라도 '幼兒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출판업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시장경제의 질서 속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의 증가분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연평균 30%에 이르는 출판량 증가에 비해 서점공간 등 유통부분의 확대가 미치지 못하는 점이 문제.

다른 한편으로 출판사 '등록의 자유화'는 '출판의 자유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책을 내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도 책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슨 책을 내더라도 좋다는 의미와 통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성' 도서에 대해 납본필증을 교부하지 않던 이제까지의 행정조치를 앞으로는 사법적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만큼, 출

출판을 거절당했던 책들

「더블린 사람들」은
2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고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18번이나 거절당했다.

구텐베르크의 성경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의 하나인 구텐베르크 성경을 인쇄한 구텐베르크(1400~1468)는 그 책으로 인해 곧 빚더미에 앉았으며,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인쇄시설을 푸스트(J. Pust)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인기 높았던 「種의 기원」

찰스 다윈(1809~1882)은 그의 저서 「種의 기원」의 초판 1250부가 너무 많이 찍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초판을 찍어내는 날로 다 팔려버렸다.

출판을 거절당했던 책들

몇번이나 출판을 거절당하다가 결국 출판되어 유명해진 책들은 의외로 많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더블린 사람들」-제임스 조이스 작.

15개 단편을 묶은 이 책의 원고는 더블린의 22개 출판사가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1914년 런던에서 출간.

•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리처드 바크 작.

‘더 높이 나는 갈매기가 더 멀리 본다’는 인용으로도 많이 알려진 이 책은 불과 1000단어로 이루어졌다. 1970년 맥밀란社가 펴내기 전에는 18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고. 출간 후 1975년까지 미국에서만 700만부 이상이 팔렸다.

• 「삶에의 정열」-어빙 스톤 작.

반 고흐의 전기인 이 책은 17개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하다가 드디어 1935년 출간되자 70여 판을 거듭 찍었다. 적어도 2400만권 이상이 팔렸고, 커크 더글러스 주연으로 영화화된 적도 있다.

• 「피터의 원칙」-로렌스 피터 작.

‘무능 레벨’ 또는 ‘창의적 무능’을 이야기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책은 모로우社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 16번 거절당했다. 1969년 출간된 이후 600만권 이상 팔렸고, 저자는 속편이라고 할 몇권의 책을 계속 써나가게 되었다.

• 「콘 티키」-토어 헤이어달 작.

땃목배로 태평양을 건넌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한 이 책은 1950년 렌드 맥널리社가 출판하게 되기까지 20개 출판사에서 ‘출판할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출판되자마자 수백만부가 팔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다큐멘터리 필름은 아카데미賞을 받기도 했다.

가장 훌륭한 아동도서

미국 아동도서협회가 도서관 업무 종사자, 교사, 작가, 출판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년

간의 가장 훌륭한 아동도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책들이 선정되었다. (1976) 팔호 안은 출판연도와 읽기 연령 수준이다.

1. 「샤롯의 거미줄」(1952, 모든 연령)/E. B. 화이트
2. 「야성이 있는 곳」(1963, 4~8세)/모리스 샌닥
3. 「툼 소녀의 모험」(1876, 10세 이상)/마크 트웨인
4. 「소공녀」(1869, 10세 이상)/루이자 메이 울콧
5. 「허클베리 핀의 모험」(1885, 10세 이상)/마크 트웨인
6. 「숲속의 작은 집」(1932, 6~10세)/로라 잉걸스 와일더
7. 「조니 트레맹」(1943, 10세 이상)/이스트 포비스
8. 「오즈의 마법사」(1900, 8세 이상)/프랭크 바움
9. 「초원의 집」(1935, 6~10세)/로라 잉걸스 와일더
10. 「푸른 돌고래의 섬」(1960, 12세 이상)/스콧 오델
11. 「늑대들 속의 줄리」(1972, 12세 이상)/J. C. 조지

빌려보기 고약한 책

「영국의회기록」(1800~1900)이라는 책은 총 1100권으로, 무게는 3.5톤이나 되고 값도 한 질에 6500달러나 되며, 겨우 500부 밖에 인쇄되지 않아 가장 빌려보기가 고약한 책의 하나로 간주된다.

책의 나라 미국

미국에서는 하루 125종의 새 책이 발행되는 데 소설 15종, 아동도서 8종, 사회경제학 20종, 역사부문 6종, 참고도서류 5종, 의학서 8~9종, 철학·심리학 9종, 과학기술 15종, 종교 6종 등으로 평균통계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또 미국인은 하루 평균 500만권의 책을 사본다는 계산이다.

「신곡」의 완성일

단체는 「신곡」의 마지막 章을 1321년 그가 죽던 마지막 날 밤에 썼다고.

성경과 개

성경에는 개가 18번 등장하는 반면, 고양이 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유명인의 IQ

현대식 IQ측정방법으로 유명인의 IQ를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피테 210, 볼테르·뉴턴 190, 갈릴레오 185, 다빈치·데카르트 180, 링컨 150, 나폴레옹 145, 워싱턴 140.

「이슈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 바람과 태양의 코트 벗기기 등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들은 모두 「이슈우화」에 나오는 장면들이다.

— 김호근·프리 에디터

판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남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성 여부를 결정하는 사후 규제의 주체가 행정에서 사법쪽으로 변화되다 는 점에서 그것은 우리 출판환경의 진일보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는 등록 개방에 따른 사전 규제 해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이제 등록개방과 더불어 ‘공산주의 를 직접 고무·찬양하지’ 않는 한 체제비판적 이념도서의 출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흔히 自費출판의 형태로 기존 출판사의 명의를 빌려 해오던 기념사업적 성격이 짙은 개인 출판행위들도 앞으로는 그 형태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잡지계 판도 再編 가능성도

잡지쪽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부 특수 지나 여성지를 제외하면, 지난 80년의 언론통 폐합 이래 시사종합지나 사회과학 전문지 등의 정기간행물 등록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80년대 들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진 각종 무크지의 발간은 바로 이같은 정기간행물 등록 불허에 나름대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가장 최근의 경우에는 계간지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신청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이라는 회신을 받아 무크지로 변경 출간한 모 역사전문지가 대표적인 예.

그러나 출판사 신규등록 자유화와 함께 정 기간행물 등록도 곧 개방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잡지계의 움직임 역시 분주하다.

우선 폐간된 잡지들의 복간 움직임이 활발하다. 1960년대 한국의 지식인사회에 큰 영향을 행사했던 월간 「사상계」를 필두로, 언론통 폐합 당시 폐간된 잡지들도 속속 복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작과 비평」 「뿌리깊은 나무」 「월간 중앙」 등이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상황만 조성된다면 언제라도 복간하겠다는 입장이고, 「문학과 지성」의 경우는 복간 대신 새로운 계간지 「현대비평」을 낼 계획. 개중에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폐간된 잡지들의 이같은 복간 움직임과 함께 일부 출판사들의 잡지 창간 계획도 활발하다. 무크지 형태로 출간해 온 한길사의 「사회과학연구」가 계간지로 바뀔 예정인가 하면, 나남, 범우사, 지식산업사, 학민사 등에서 주로 사회과학 분야를 다룰 잡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예원과 계몽사에서 각각 「여성문학」과 가정 교육전문지를

곧 창간할 계획이고,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던 일부 문학동인지의 경우도 계간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잡지계는 언론기본법 폐지 이후 인문사회과학 잡지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해보고 싶은 사람은 다 해보도록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정리될 것은 다 정리되어 2~3년래에 잡지계 판도의 재편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특히 신문사 등 언론기업의 잡지 兼營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는 눈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잡지협회 李鍾均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문사의 겸영 금지 조치라고 생각한다. 잡지는 발행하되 경영은 분리시켜야 한다”면서 “수십년 동안 자신의 생을 바쳐가며 하나의 잡지문화를 이룩해 놓으면 신문사에서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삼켜버린 예가 허다하다”고, 정기간행물 등록자유화 이후 예상되는 신문사의 잡지계 침식을 우려하고 있다.

보다 완전한 개방을 기다리며

어쨌든 이제 출판사 및 정기간행물 등록자유화는 그 시기와 폭이 문제가 될 뿐,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당국의 미온적 조치에 실망한 일부 출판인들 사이에 ‘아직도 멀었다’는 부정적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나, 劉載天교수의 지적대로 국가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문화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은 문화이용자의 필요에서 나온다’는 인식으로 전환된 것만 해도 일단은 환영받을 만하다. 따라서 앞으로 출판·잡지계가 해야 할 일은 이같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출판민주화의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출판의 기능이란 저자·출판사·독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온전하게 발휘된다는 점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저술과 출판의 결과는 사상의 공개시장 원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85년 5월 을유문화사 등 16개 출판사 대표들이 연명으로 발표한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우리의 견해’에서 밝혔듯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사회가 생산하는 모든 출판물을 사상의 공개시장에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안일 것이다.”

— 강철주 기자